

민족의
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
장애인시민본부 보도자료
(본부장: 서미화 의원)

보도일시	2025. 5. 28.(수)	담 당 자	노혜담 선임비서관 (02-784-6441)
배 포 일시	배 포 즉시		

‘대국민 성희롱’ 이준석은 즉각 대선후보와 의원직을 사퇴하라

끝 모를 오만과 독선, 갈라치기와 혐오로 구질구질하게 정치생명을 이어온 이준석이
기어코 특대형 사고를 쳤다.

어제 열린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준석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
한 질문을 빙자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혐오가 담긴 언어폭력 발언을 했
다.

전 국민이 지켜보는 저녁 시간대 공중파 방송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저급하고 저열
한 성희롱을 자행한 것이다.

이준석의 망국적 경거망동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
하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.

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토론회의 무게감과
엄중함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자괴감이 들었다.

하지만 이준석은 ‘읍참마속의 자세’, ‘지도자의 자세’를 운운하며 후안무치하게
자기변명만 늘어놓고 있다.

게다가 상대 진영의 위선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또다시 2차 가해와 갈라치기

에 나섰다.

도대체 이준석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뭐로 보는 것인가? 이제는 대선 후보는 물론,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조차도 이준석에게는 지나치게 과분하다.

어제의 성적 혐오 발언으로 이준석은 본인이 ‘사회적 공해’임을 온 국민 앞에서 스스로 증명했다. 인격이라는 것이 한 줌이라도 남아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.

이준석은 그간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혐오와 차별, 갈라치기로 국민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며 기생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.

이준석에게 강력히 경고한다. 전매특허인 혐오와 차별, 갈라치기는 물론 전 국민을 성희롱한 대가를 반드시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.

즉각 대선 후보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.

2025년 5월 28일

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장 서미화

